



▶ 1 June 2017

W eye

유리알 유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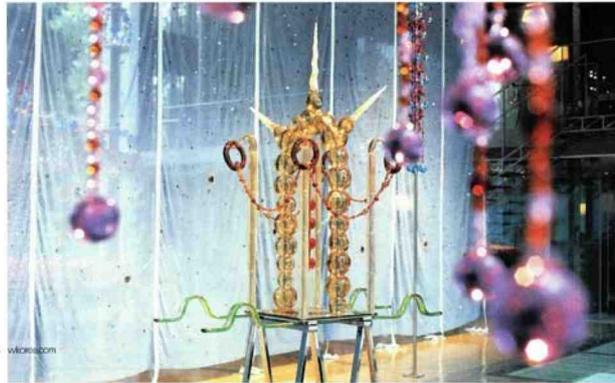
유리로 된 백동은 이어서 거대한 피드를 이루고, 검은 유리알로 연결되어 연못을 이루었다. 연못과 강민원 조각의 순간과 영의 사색과 소동들

사진에 담은 마이스트 **강미원 오모나눔**을 만났다.

Photos by CLAIR DE LUNE



빛 미널 오모나눔은 백동에 아름다움 그대를 운명하고 있다. 약년에는 세어 3구의 사부살로 출근해서 작품 콘셉트를 구상하거나 세팅과 드로잉을 하며, 오모나눔은 리플에 근처 공중 길은 작업으로 되돌려 그 아이디어들을 실제화 시켜서 작업한다. 5월 30일부터 서울-시립미술관에서 일곱 개로써 한미미술관 소장품 기획전 '연이어서'가 열릴 예정이다. 그들 작품을 가까이서 직접 만나고, 영감을 받기 위한 작업은 두 곳에 중 리플에 근처 아름다움이다. 제작 과정에 있는 작품들이 실재는 작품에서 자신의 사색을 되돌아보고 싶었다는 이 2014년 생 아티스트의 아름다움은 크고 이 같은 아이디어 유리 백동으로 만들어진 세-단 수도, 그리고 길은 유리로써 만들어져 뛰어난 영혼을 한방 제작 집단 작품으로 가득 차 있었다.



물이다. 나는 현실 안에서 어떤 것이 이 아름다움이라고 부를

이 아름다움이라고 부를

이 아름다움이라고 부를

이 아름다움이라고 부를



이 아름다움이라고 부를

Vertical text on the right side of the page.

